

독일어 동사의 동작태 (Aktionsart)와 사건구조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신 수 송

일반적으로 독일어의 동사들은 어휘적인 의미로서 내포하고 있는 시간적 속성에 따라 지속, 상태 및 사건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Klein 1994, 1998의 동사분류 참조). 이들 중 사건동사들의 동작태는 지속이나 상태의 경우와는 달리 복합적인 사태를 나타내며, 전통적으로 동사의 의미연구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Agrell (1908)로부터 시작해서 Grebe (1966), Steinitz (1981), Flämig et al. (1981), Helbig/Buscha (1986) 등에 의해서 행해진 지금까지의 동작태 연구는 주로 동사의 동작태를 미완결/지속 (imperfektiv/durativ) 혹은 완결 (perfektiv)로 구분하고 완결은 다시급 시작 (ingressive)과 결과 (resultative) 또는 시작 (ingressive)과 종결 (egressive)로 구분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다만 직관적인 자료분류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류가 통사론 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연구는 결여된 상태였다. 한편 최근 Kripka (1989, 1992), Herweges (1990), Verkuyl and Zwarts (1992) 등은 명사구(특히 목적어)가 술어의 동작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Moens and Steedman (1988), Smith (1991), Egg (1994) 등에서는 Vendler (1957, 1967)와 Dowty (1979)의 행위 (activity), 상태 (stative), 완성 (accomplishment) 및 성취 (achievement)와 같은 동사의 상의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면서 동사의 동작태를 새로이 분류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독일어 문법에서 제시된 동사의 동작태 분류와 최근 상의 연구에 따른 동사의 동작태 분류가 독일어에서 사건을 지칭하는 전철동사의 동작태를 기술하는데 부적절함을 보이고 동작태와 사건구조의 상관관계를 밝히려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사건동사를 상태나 지속성 동사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통사적인 수단으로 상태수동문,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 유도 등이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타동사의 경우에는 중간구조 (Mittelkonstruktion)가, 그리고 자동사의 경우에는 비인칭 수동문 (unpersönliches Passiv)이 아울러 이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철동사에 의한 사건구조가 복합사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태변화는 통사적으로 가시화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beginnen과 aufhören과 같은 보조동사의 도움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사건구조의 비가시적인 시간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98 해외연수 특별 지원금'에 의해 완성되었음.

간을 시간축 상에 기술함으로써 가시적인 시간구간을 확정하는 지속성 시간부사(durative Adverbien)나 시간연장 부사(Zeitspannadverbien)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1. 동사의 동작태(Aktionsart)에 관한 연구분석

최근 독일어의 동작태에 관한 연구는 Vendler (1957, 1967), Dowty (1979)의 동사의 상(Aspect)에 대한 분류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들의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a. 상태(state: 완전히 동질적인 것)
- b. 진행(process: 어느 정도 동질적인 것)
- c. 완성(accomplishment: 상태의 변화를 위해 원인으로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
- d. 성취(Achievement: 단순히 순간적인 상태변화)

그러나 Egg (1994)는 독일어의 동작태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동사의 상적 분류가 다음과 같은 독일어의 사건동사를 기술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 (2) a. Ariadne spielte eine Sonate.
- b. Fritz hustete.
- c. Amelie sang fünf Stunden lang.

즉 이들 예문들에 나타난 spielte, hustete 및 sang은 시간구간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나 진행의 상과는 다르고 그렇다고 완성이나 성취를 나타내는 상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독일어의 동작태를 상태, 진행, 변화 및 내적 지속성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거나 받지 않는가에 따라 술어를 사건술어와 비사건술어로 나누고, 그리고 사건술어는 변화(telic)와 불변화(atelic)로 구분한다.¹ 사건술어가 불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를 그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적 지속성 술어(intergressive)라고 칭하여 위의 예들을 사건술어로 정의한다. 그의 이론의 특징은 사건 술어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적인 제약과 변화에 덧붙여 시간구간을 설정하는 것이었다.² 즉 동사가 사건술

¹시간적 제약(BD=Begrenztheit)이란 임의의 술어에 해당되는 시간적인 한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제약은 내적 지속(intergressive)과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에는 타당하고 상태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Egg 1994: 44).

² 시간구간 설정(intervall-basiert)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 기초한다.

a) Intervall-basierte Prädikate machen stets Aussagen über mindestens zwei Punkte.

어로 사용되기 위해서 첫째 변화를 나타내야 하며³, 둘째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셋째 사태변화가 시간구간을 근거로 해야만 한다. 두 번째의 시간적인 제약은 만일 어떤 사건이 특정한 시간 t 에서 발생하면 이 사건은 시간 t 의 하위 시간구간인 $t'(t' \in t)$ 에서도 역시 발생해야 하며 다른 시간구간인 $t''(t' \in t'')$ 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되는 제약을 말한다. 이들 사건 술어에 적용되는 세 가지 조건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만일 어떤 술어가 변화(telic)를 나타내면 자동적으로 사건술어가 되고 이 사건술어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동시에 사건 진행을 위한 시간구간이 설정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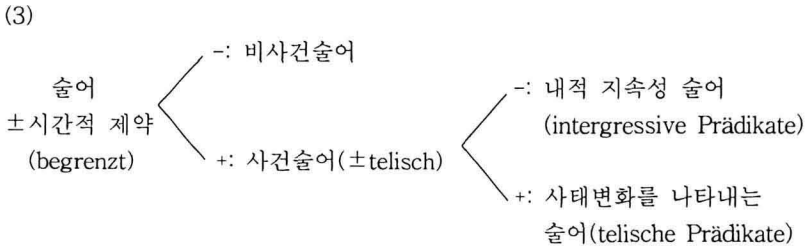


도표 (3)에서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술어(telische Prädikate)는 자동적으로 사건술어로서 시간적인 제약(+begrenzt)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금 자동적으로 시간구간(interval)을 근거로 한다. Egg가 제시한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술어는 그의 이론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건술어로서 시간구간을 갖게 된다. Egg의 정의에 따라 경우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대다수의 전철동사들은 일반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적으로 특정한 시간구간에 적용되는 지속성부사(durative Adverbien)나 시간연장부사(Zeitspannadverbien) 등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을 나타내는 전철동사들이 이들 부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논문의 전개 과정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건의 동작태를 갖는 전철동사들이 어휘의미로서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갖지만 통사적으로 이 시간구간이 확인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은 Egg이론 역시 동사의 동작태를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Egg (1994)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Moens/Steedman (1986, 1988)은 동사의

(시간구간에 기초하는 술어는 항상 적어도 두 시점사이에서 그 의미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b) Nicht intervall-basierte Prädikate können dagegen relativ zu einzelnen Zeitpunkten evaluiert werden (시간구간에 기초하지 않는 술어는 이에 반해 개별적인 시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Egg (1994: 41) 참조.

³ Egg (1994: 48)은 사건변화(Wechsel 혹은 telisch)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rädikate sind genau dann telisch, wenn sie einen definiten Zustandwechsel einführen. 술어는 만일 어떤 확정적 상태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에서 변화(telisch)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을 분류하였다. 이들은 동사를 진행 (process), 완성 (accomplishment), 성취 (achievement) 및 순간성 (punctuality)의 상을 갖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들 구분에 대한 근거로서 단절성 (atomic)과 결과의 산출 (consequent)을 들었다. 즉 진행동사는 단절성과 결과의 산출에 부정적이고 완성동사는 단절성은 부정적이지만 결과를 산출하고 성취동사는 단절성에 대해서도 결과의 산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끝으로 순간성 동사는 단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결과의 산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자질을 갖는 것으로 자질부여를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부여가 나타내는 문제점은 Egg (1994)의 경우와는 달리 사건 기술에 있어서 시간구간을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완성과 성취동사의 경우 모두 결과의 산출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단절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Dowty (1979)에서 볼 수 있는 행위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성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순간성의 동사가 결과의 산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질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야기된다. 예를 들어 finden, entdecken, erreichen - Hans erreicht den Gipfel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 등과 verlieren, vergessen, treffen 등은 모두 이들의 분류에 따를 것 같으면 순간성 동사의 부류에 속하고 단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자질을 갖는다. 그러나 전자가 행위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반면 후자에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한 것을 이들의 자질부여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동작 태 기술을 위해 시간구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상의 자질분류의 문제점으로 미루어 볼 때 Egg (1994)의 사태 변화, 시간적 제약 및 시간구간의 설정을 근거로 한 이론에 비해 Moens/Steedman (1986:88)의 이론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건동사의 동작태 기술에 부적합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된 상과 동작태의 연구가 독일어의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동작태 분석에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절에서 논의하여 보자.

2. 독일어 동사의 동작태 (Aktionsart)

독일어에서 상태와 지속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를 제외하고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전철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예로서 기동 (inchoativ)과 결과 (resultativ)의 동작태를 들 수 있다.⁴ 먼저 기동의 동작태를

⁴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 동작태 (Aktionsart)의 분류를 미국의 Dowty (1979)/Vendler (1957, 1967)의 상의 기술에 근거하지 않고 Agrell (1908)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여 최근 Grebe (1966), Steinitz (1981), Flämig/Heidolph/Motsch (1981), Helbig/Buscha (1986)에 이르는 전통문법 연구에 근거한다. 이들의 동작태에 대한 분류는 미완결/지속 (imperfektiv/durativ) 혹은 완결 (perfektiv)로 구분하고 완결은 다시급 시작 (혹은 ingressive)과 결과 (resultative)로 또는 시작과 (ingressive) 종결 (eggressive)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갖는 동사들의 의미를 기술하여 보자.

2.1. 기동의 동작태 (inchoative Aktionsart)

독일어에서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는 주로 사건의 발생을 나타내는 자동사에 국한되고 *er-*, *ab-*, *an-*, *auf-*, *aus-*, *los-* 등 다양한 전철에 의해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며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er-*: *erbeben*, *erbrausen*, *erdröhnen*, *erfunkeln*, *erglänzen*, *erglühen*, *erglimmen*, *erhalten*, *erklingen*, *erschimmern*, *erstrahlen*, *ertönen*, *erzittern*, etc.

auf-: *aufbrüllen*, *auffunkeln*, *aufglimmen*, *aufglühen*, *aufjauchzen*, *aufkreischen*, *aufleuchten*, *aufwiehern*, etc.

an-: *anbrennen*, *anfahen*, *angaloppieren*, *anlaufen*, *anknabbern*, *anrauchen*, *anrollen*, *anreiten*, *anschwimmen*, *anschwingen*, *ansingen*, *anspielen*, *antraben*, etc.

ein-: *einschlafen*

los-: *losarbeiten*, *losgaloppieren*, *loslachen*, *losmarschieren*, *lossingen*, *losbrüllen*, etc.

이제 차례로 이들 동사들의 공통적인 동작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고찰하여 보자 (다음 (5c)의 시간구조 기술은 신수송 1997 참조).

(5) a. Der Fußboden erbebt.

b. Der Fußboden bebt.

c. -----[~~~~]-----
 -φ t 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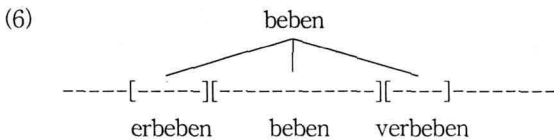
-φ = Der Fußboden erbebt.

φ = Der Fußboden bebt.

도표 (5c)에서 -----는 시간 축을, 기호 [는 시작을 나타내는 시점을, 그리고 ~~~~는 자동사 여간 *beben*에 의해 지칭되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동작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결여된 상태에 있고 단지 직관에 의존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동작태를 한편으로는 시작 (inchoativ)과 결과 (resultativ)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 (durative)으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전통문법에서의 완결 (perfektiv)와 미완결 (imperfektiv)에 의한 동작태 분류가 통사법주로서 상 (Aspekt)을 표시하는 완료상 (Perfekt)과 미완료상 (Imperfekt)의 용어와 혼동되기 때문이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다’(der Fußboden erbebt)는 동시에 ‘땅이 움직이다’(der Fußboden bebt)를 함의한다. 즉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땅이 움직이는 상황에 도달하기까지의 변화를 어떤 시간구간에 표시한다는 것은 독일어에서는 불가능하다. (4)에 제시된 이들 동사들의 특징은 사건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한 시간구간(Interval)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punktuell) 발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움직이다’(beben)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시작과 종결을 함의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Storch 1976:136).



(6)에서 ‘움직이다’(beben)는 ‘움직이기 시작하다’(erbeben), ‘움직이다’(beben), ‘움직이기를 그치다’(verbeben)의 세 시간구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하다’(erbeben)와 ‘움직이기를 그치다’(verbeben)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통사적인 시험을 통해서도 그 차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지속을 나타내거나 시간경과를 나타내는 부사들과 erbeben 및 (4)에 제시된 어떠한 기동동사들도 이들이 동시에 통사상에 나타날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7) a. Der Fußboden erbehte.
 b. *Der Fußboden erbehte *10 Minuten lang*.
 c. *Der Fußboden erbehte *in 10 Minuten*.
- (8) a. Die Glocke erklang.
 b. *Die Glocke erklang *eine Stunde lang*.
 c. *Die Glocke erklang *in einer Stunde*.

(7a)의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der Fußboden erbehte)는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10분 동안’(10 Minuten lang)이나 시간 연장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10분이 지나서’(in 10 Minuten) 등과 나타날 경우 (7b, 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문법적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동동사 erklingen은 각각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한 시간 동안’(eine Stunde lang)이나 시간 연장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한 시간이 지나서’(in einer Stunden) 등과 나타날 경우 (8b, 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시 비문법적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비분리 전철과 자동사의 어간으로 구성된 기동동사들은 지속을 나타내거나 시간연장을 나타내는 부사/부사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구조와 세계의 사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항상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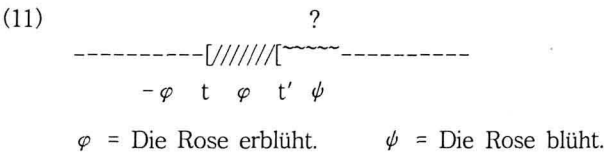
문 (7), (8)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4)의 기동동사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함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 (9) a. Während die Glocke erklingt, klingt sie.
- b. Während die Lampe aufglimmt, glimmt sie schon.
- c. Während der Sänger lossingt, singt er.

기동동사 erklingen, aufglimmen, lossingen 등은 사태변화의 시작과 더불어 동사어간 klingen, glimmen, singen 등이 지칭하는 동작이 지속된다. 즉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종은 울리게 되고, 전등이 켜짐과 동시에 전등은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면 가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9)에서 나타내는 이러한 함의관계가 상당수의 (4)에 제시된 기동동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 a. Während die Blume erblüht, blüht sie nicht.
- b. Während die Scheinwerfer aufstrahlen, strahlen sie noch nicht.
- c. Während der Wagen anfährt, fährt er noch nicht.

(10)에서 기동동사 erblühen, aufstrahlen, anfahren은 자동사 어간 blühen, strahlen, fahren이 지칭하는 진행이나 상태를 함의하지 않는다. 즉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해서 꽃이 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조등이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전조등이 빛을 발산하고 있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출발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별적인 기동동사의 의미는 함의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이들은 사태변화의 시작에서 자동사 어간이 지칭하는 지속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간축 상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신수송 1997 참조).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동사적으로 자신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 [t, t']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sein을 보조동사로 취하는 자동사의 완료 시제와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에서 증명할 수 있다.

- (12) a. Die Rose ist vor einer Stunde/*eine Stunde lang/
 *seit einer Stunde erblüht.

- b. die vor einer Stunde/*eine Stunde lang/
*seit einer Stunde erblühte Rose

(13) a. Das Auto fährt an.

- b. Das Auto ist vor einer Minute/*eine Minute lang/
*seit einer Minute angefahren.

- c. das vor einer Minute/*eine Minute lang/
*seit einer Minute angefahrene Auto

기동동사 erblühen은 지속성 시간부사 (durative Adverbien)이나 시간연장 부사 (Zeitspann-adverbien)등과 결합할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12a)에서 eine Stunde lang, seit einer Stunde와 같은 부사가 나타날 경우 비문법적이다. 또한 과거분사 형태가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문맥에서도 이들 지속성 시간부사나 완료이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등이 나타날 경우 (1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비문법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축 상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난 후 이 변화가 종결되는 우측 경계시점 t'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erblühen이 지칭하는 세계사태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사태변화가 근거할 수 있는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지만 독일어의 구조는 그러나 단지 시작을 나타내는 좌측 경계시점인 t만을 인정하고 우측 경계시점인 t'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13)의 anfahren이 지칭하는 세계의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우리의 직관은 자동차가 출발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달리게 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구간을 필요로 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직관은 (13b, c)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독일어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사건 변화가 종결되는 시점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함의 관계를 통해 밝힐 수 있다 (Storch 1976: 127f).

(14) a. Während die Blume noch erblühte, wurde sie durch Hagelkörner zerstört.

- b. Sieh mal, die Blume erblüht. - Richtig! Aber nicht mehr lange, weil ich sie jetzt gleich mit umgr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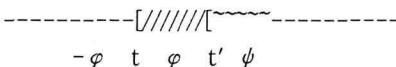
(14a)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우박으로 피지 못하게 된 것을, 그리고 (14b)는 꽃이 피지 못하게 파묻어 버림으로써 꽃이 피는 상태가 erblühen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사를 어간으로 하는 전철동사들의 동작태 (inchoative)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음은 형용사와 명사를 어간으로 하는 전철동사들의 동작태 (inchoative)를 고찰해 보자. 먼저 형용사 어간과 동사 어간을 갖는 기동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본다.

- (15) **ab-**: *ablassen, abbleichen, abflachen, abfaulen, abkühlen, abmagern, abmatten, abstumpfen, etc.*
aus-: *ausbleichen, ausfaulen, ausgären, ausheilen, auskühlen, ausöden, ausreißen, austrocknen, etc.*
er-: *erblinden, erbleichen, ergrauen, ergrünen, erhärten, erheitern, erkranken, erlahmen, ermatten, ermüden, erröten, erschlaffen, erstarken, erstarren, erwachen, erweichen, etc.*
ver-: *verarmen, verblassen, verbleichen, vereinsamen, vergilben, veröden, verrohen, vertrocknen, verweiblichen, verweltlichen, versauern, verstummen, etc.*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 (16) **ab-**: *ablättern, abbröckeln, abfasern, etc.*
an-: *anrosten, anschimmeln, anstauben, etc.*
auf-: *auffasern, aufsplintern, aufgliedern, aufteilen*
 (mit reflexiven Pronomen), etc.
ver-: *verbauern, verdampfen, verdunsten, vereisen, vereitern, verfetten, vergärtnern, vergletschern, vergrasen, vergreisen, verharschen, verkohlen, verhoken, verkalken, verkrusten, verlanden, vermodern, vermoosen, verschulfen, versteppen, versteinern, versumpfen, versanden, verschlacken, verschleimen, verstauben, verschlammen, verschmutzen, versnoben, verspießern, versteppen, vertorfen, verstädtern, vertieren, vertrotteln, verunkrauten, verwaisen, etc.*
zer-: *zerbröckeln, zerfasern, zerfetzen, zerkrümeln, etc.*
 (어간이 명사인 경우)

이들 명사와 형용사 어간을 갖는 기동동사들에 대한 우리의 언어직관은 erblühen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의 변화가 시작되어서 종결될 때까지의 일정한 시간구간을 갖는 것으로 본다. 다음 예문들과 이들이 지칭하는 사건을 시간축 상에 기술하여 보자 (신수송 1997 참조).

- (17) a. Der Mann erblindete.
 b. Die Wunde vernarbte.
 c.



φ = Der Mann erblindet./Die Wunde vernarbt

ψ = Der Mann ist blind geworden./Die Wunde ist zur Narbe geworden.

(17a)가 지칭하는 바는 (17c)와 같이 시간축 상에 기술된다. 즉 ‘눈이 멀게 되다’는 시간구간 $[t, t']$ 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건으로서 시점 t 이전에는 눈이 멀지 않았다가 t 이후에는 눈이 멀기 시작해서 t' 에서 눈이 멀게되는 복합적인 사태를 나타낸다. 동일하게 (17b)가 지칭하는 바는 상처가 아물게 되는 사태로서 시간구간 $[t, t']$ 를 근거로 하며 시점 t 이전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다가 t 이후에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서 t' 에서 상흔으로 남게 되는 역시 복합적인 사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우리들의 언어직관에 따르면 (17a, b)가 지칭하는 복합사태는 분명히 시간구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속이나 시간연장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통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erblinden, vernarben 등과 같은 동사들의 동작태는 그와 같은 문맥에서 모두 비문법적임을 보여준다.

(18) a. Der Mann erblindete vor einem Tag./*zwei Tage lang./
*in einer Woche.

b. Die Wunde vernarbte vor einem Tag./*eine Woche lang./
*in zwei Tagen.

(18a)는 ‘그 남자가 이틀동안 눈이 멀었다’ 혹은 ‘일주일 안에 눈이 멀었다’와 같이 지속성 시간부사 zwei Tage lang이나 시간연장 부사 in einer Woche가 나타날 경우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고, 단지 사태의 종결을 나타내는 vor einem Tag만이 허용된다. 동일하게 (18b)에서도 ‘상처가 일주일 동안 아물었다’ 혹은 ‘이틀안에 상처가 아물었다’와 같이 지속성 시간부사 eine Woche lang이나 시간연장 부사 in zwei Tagen이 나타나면 모두 비문법적이고, 사태의 종결시점을 지칭하는 vor einem Tag과 사용될 경우에만 문법적이다. 또한 erblühen, anfahren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동사들의 완료형태가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사태의 지속이나 사태의 종결이후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와는 통사상 양립할 수 없다.

(19) a. der vor einem Tag./*zwei Tage lang/
*in einer Woche erblindete Mann

b. die vor einem Tag./*eine Woche lang/
*in zwei Tagen vernarbte Wunde

독일어에서 ‘하루전에 눈이 먼 남자’가 문법적인데 비해 ‘이틀동안 눈이 먼 남자’, ‘일주일 안에 눈이 먼 남자’는 모두 비문법적이다. 또한 ‘하루 전에 상흔이

남겨진/아몰어 버린 상처'는 문법적인데 반해 '일주일 동안이나 아문 상처,' '두 주일이 지나 아문 상처'는 독일어에서는 모두 비문법적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사건을 지칭하는 자동사의 동작태는 상태나 진행을 지칭하는 자동사의 동작태와는 이상에서 제시한 특정한 시간구간을 지칭하는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을 나타내는 부사들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행을 나타내는 자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고찰해 보자.

- (20) a. Man arbeitete gestern nur 4 Stunden lang.
- b. Man streikte in München die ganze Woche.
- c. Man tanzte die ganze Nacht

지속성 동사 arbeiten, streiken, tanzen 등은 특정한 시간구간을 지칭하는 시간 부사들 예를 들어 4 Stunden, die ganze Woche, die ganze Nacht 등과 통사적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다음처럼 비인칭 수동문 유도를 허용한다.

- (21) a. Es wurde gestern nur 4 Stunden lang gearbeitet.
- b. Es wurde in München die ganze Woche gestreikt.
- c. Es wurde die ganze Nacht getanzt.

상태의 동작태를 갖는 schlafen, bleiben 등과 같은 동사들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비인칭 수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⁵

- (22) a. Man schlief gestern im Büro. →
 Es wurde gestern im Büro geschlafen.
- b. Man bleibt heute zu Hause. →
 Es wurde heute zu Hause geblieben.

그러나 이러한 비인칭 수동문 유도의 통사규칙은 사건을 지칭하는 앞서 제시한 전철동사들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 (23) a. Die Rose erblühte gestern. →
 *Es wurde gestern erblüht.
- b. Der Mann erblindete vor einer Woche. →
 *Es wurde vor einer Woche erblindet.
- c. Die Wunde vernarbte allmählich. →
 *Es wurde allmählich vernarbt.

⁵ 이들 예들은 Nerbonne (1986: 915)에 근거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건을 지칭하는 기동동사를 i) *erbeben, erklingen*, ii) *erblühen, anfahren*, iii) *erblinden, vernarben*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동작태를 시간 축상에서 고찰해 보았다. i)의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은 직관적으로 ii), iii)의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과는 사건변화가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ii), iii)에 속하는 동사들은 직관적으로는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들이 모두 시간구간을 확정지을 수 있는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 부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들 사건을 지칭하는 기동동사의 어휘적 속성은 Egg (1994)의 사건술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기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추상적인, 즉 통사상에서 가시화 될 수 없는 시간구간을 점유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어의 기동동사가 갖는 어휘적 속성과 이들이 지칭하는 세계의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2. 결과의 동작태 (resultative Aktionsart)

독일어에서 결과의 동작태는 주로 타동사인 전철동사들이 갖게 되는 동작태로서 이들은 전철에 의해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철은 비분리 전철 (*er-, ver-, be-, ent-* 및 *zer-*)과 분리전철 (*ab-, an-, auf-, aus-, bei-, ein-, nach-, vor-* 및 *zu-*) 및 이중 형태의 전철 (*durch-, um-, über-, unter*)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전철동사들은 사건, 지속, 상태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중에서 사건을 나타내고 결과의 동작태 (resultative Aktionsart)를 갖는 동사들을 구분하려고 하며 다만 비분리 전철동사만을 택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먼저 비분리 전철동사들을 어간이 명사, 형용사 및 동사인 경우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a. 어간이 명사인 경우

er-: *erbeuten, ergründen, erhitzen, erlisten, ermitteln, erzielen, etc.*

ver-: *verausgaben, verbeamten, verbuchen, verglasen, verschrotten, etc.*

be-: *bebildern, beflaggen, beantragen, bebildern, beflaggen, bekränzen, bekrönen, bemasten, benebeln, etc.*

ent-: *enteisen, enterben, entfärben, entfesseln, entfetten, entfristen, entfrosen, enthaaren, entkalken, entlauben, etc.*

zer-: *zerfleischen, zerspanen, zersplittern, zerstäuben, zerstrahlen, zerstückeln, zertrümmern, etc.*

b.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er-: *erfrischen, ergänzen, erheitern, erhöhen, erleichtern, erneuern, erniedrigen, ernüchtern, etc.*

ver-: *verbessern, verbreitern, verengen, verdummen, verkleinern, etc.*

be-: *beengen, befähigen, befreien, belustigen, bestärken, betätigen, etc.*

ent-: *enthärten, entfeuchten, entfremden, entpersönlichen, etc.*

c. 어간이 동사인 경우

er-: *erarbeiten, erbauen, erforschen, erlernen, erleuchten, erringen, ersitzen, ersteigen, erwählen, erzeugen, etc.*

ver-: *verachten, verändern, verarbeiten, verbinden, verfolgen, etc.*

be-: *bedrohen, befragen, behindern, belauschen, beliefern, etc.*

ent-: *entatmen, entfalten, entheben, enthemmen, entkleiden, entkoppeln, entladen, entkleiden, entsenden, etc.*

zer-: *zerlegen, zerreiben, zerreißen, zerschlagen, zerstreuen, zerteilen, etc.*

다음으로 이들 타동사들의 동작태가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나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통사 의미론적인 수단을 연구하여 보자. 우리는 앞서 사건을 지칭하는 동작태는 상태나 지속을 지칭하는 동작태와는 달리 복합적인 사태변화로 기술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도표 11 참조). 즉 하나의 사건은 발생단계를 의미하는 초기상태(source state)에서 일정한 변화를 거쳐 목표상태(target state)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하고,⁶ 이 변화의 어느 부분에 초점이 놓이는가에 따라 기동(inchoativ) 혹은 결과(resultative)의 동작태가 구분된다. 독일어의 경우 자동사인 전철동사들은 어간이 명사나 형용사일 때 예외없이 기동의 동작태를 갖고 사태변화의 결과가 함의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러나 어간이 동사일 경우 목표상태에 이르는, 즉 사태변화의 결과를 함의하지 못하는 사실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타동사인 전철동사는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가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은 결과의 동작태가 전철동사의 어간이 나타내는

⁶ 시간과 상에 관한 동사의 속성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Klein (1994, 1998)은 동사를 0-상태, 1-상태 및 2-상태로 분류한다. 0-상태의 동사들은 사태변화는 무관한 것으로서 시간구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1-상태의 동사들은 단지 하나의 시간구간만을 갖고 이 시간구간 이전과 이후에만 대조를 보이며 시간구간은 하위 시간구간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 2-상태의 동사들은 이 논문에서의 사건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며, 이 시간구간은 다시금 초기상태와 목표상태의 하위 시간구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취급하고있는 사건동사와 Klein의 2-상태동사의 차이점은 사건동사가 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2-상태 동사들은 이러한 시간구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가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Klein 1994: Chapter 5 참조).

품사적인 구분에 근거하기보다는 이들 전철동사들이 특정한 통사적인 시험, 예를 들어 상태 수동문 유도나 부가어적인 형용사 유도를 통해 상태나 진행을 지칭하는 동사의 동작태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어간이 명사인 전철동사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어간이 형용사, 동사인 전철동사의 동작태를 기술할 것이다. 먼저 er-전철동사의 상태 수동문 유도와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⁷

- (25) a. Man erbeutete die feindlichen Panzer.
 b. Die feindlichen Panzer sind erbeutet.
 c. die erbeuteten feindlichen Panzer.
- (26) a. Die Polizei verfolgt die Bankräuber.
 b. Die Bankräuber sind durch die Polizei verfolgt.
 c. die durch die Polizei verfolgten Bankräuber
- (27) a. Der Bäcker beliefert die Bewohner mit Brot.
 b. Die Bewohner sind durch den Bäcker mit Brot beliefert.
 c. die durch den Bäcker mit Brot belieferten Bewohner

예문 (25a)로부터 상태 수동문인 (25b)와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 (25c)가 유도된다. 상태 수동문이 어떤 사건이 완결되고 그 결과가 이 문장의 발화시점을 포함한 시간구간에서 유효한 점을 시사한다면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은 사건의 변화를 겪는 대상이 변화의 목표상태에 처하게 되고 또한 이 목표상태를 자신의 속성으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사가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의 유도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순수한 상태나 진행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 예를 들어 beglückwünschen, besuchen, ehren, entdecken, lesen, lieben, loben, streicheln, belauschen, betrachten, brauchen, sehen으로부터 상태 수동문이나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을 유도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28) a. Der Mann beglückwünscht die Frau.
 b. *Die Frau ist seit heute morgen beglückwünscht.
 c. *die seit heute morgen beglückwünste Frau

⁷ 동사의 수동화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Brinker (1971: 104), Helbig (1968: 145, 144ff), Steube & Walther (1972: 27), Zifonun (1992: 265)을 참조할 수 있다. 동작수동완료와 상태수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Brinker (1971: 115), Curme (1952: 296), Duden (1984: 186), Eisenberg (1994: 137ff.), Höhle (1978: 42f), Schoenthal (1976: 71f)를 참조. 끝으로 상태 수동문과 상태 수동문의 과거 분사가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Sommerfeldt (1988: 226f)를 참조할 것.

- (29) a. Der Junge liebt das Mädchen.
 b. *Das Mädchen ist geliebt.
 c. das geliebte Mädchen
- (30) a. Das Mädchen belauscht den Jungen.
 b. *Der Junge ist von dem Mädchen belauscht.
 c. *der belauschte Junge

다른 한편 많은 상태나 진행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이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인 형용사 유도를 허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 (31) *backen, bilden, brechen, ernten, fällen, halten, kämmen, malen, öffnen, plastern, putzen, schließen, schreiben, streiken, töten, wählen, waschen, 등등.*

즉 이들 동사들은 사건의 동작태가 아니고 상태나 지속의 동작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인 형용사 유도를 허용한다.

- (32) a. Die Mutter kämmt das Mädchen.
 b. Das Mädchen ist gekämmt.
 c. das gekämmte Mädchen
- (33) a. Man putzt das Fenster.
 b. Das Fenster ist geputzt.
 c. das geputzte Fenster
- (34) a. Man schließt die Tür.
 b. Die Tür ist geschlossen.
 c. die geschlossene Tür

동일한 이유로 진행이나 상태의 동작태를 갖는 전철동사들이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전철동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35) *er-*: *erbetteln, erbitten, erleben, erliegen, erfüllen, erheiraten, erjagen, ersehen, ertragen, ertasten, etc.*
ver-: *verdenken, verhelfen, verhören, vermahlen, verspüren, etc.*
be-: *befahren, befallen, befliegen, befühlen, beglänzen, begreifen, behalten, behelfen, bekennen, belachen, belieben, belügen, benötigen, besagen, betätigen, etc.*
ent-: *entbieten, entnehmen, entreißen, entringen, entrollen, entwerfen, etc.*
zer-: *zerbeißen, zerkauen, zerstoßen, zerstreiten, zertrampeln, etc.*

위의 전철동사들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 형용사 구문을 유도하여 보자.

- (36) a. Der Student erbettelt von den Eltern die Erlaubnis für das Auslandsstudium.
 b. Die Erlaubnis für das Auslandsstudium ist von den Eltern erbettelt.
 c. die von den Eltern erbettelte Erlaubnis für das Auslandsstudium
- (37) a. Man befährt die Strecke mit 100km/h.
 b. Die Strecke ist mit 100km/h befahren.
 c. die mit 100km/h befahrene Strecke
- (38) a. Man entwirft ein Bild der sozialen Zustände.
 b. Ein Bild der sozialen Zustände ist entworfen.
 c. ein entworfenes Bild der sozialen Zustände

이들 예문들은 결과적으로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 형용사 구문의 유도가 사건을 지칭하는 동사의 동작태를 상태나 진행을 지칭하는 동사의 동작태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진행과 상태의 동사를 문법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건의 동사를 비문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다른 종류의 통사적인 시험절차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들 동사들이 시간부사와 결합할 때 문법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 (39) a. Der Mann schreibt *drei Jahre lang* einen Roman.
 b. Der Mann *schreibt* drei Jahre lang *an einem Roman*.
 c. Der Roman *schreibt sich* sehr langsam.
- (40) a. *Man erbeutet *drei Tage lang/in drei Tagen/nach drei Tagen* den feindlichen Panzer.
 b. *Man *erbeutet* drei Tage lang *an dem feindlichen Panzer*.
 c. *Die feindlichen Panzer *erbeuten sich* leicht.
- (41) a. *Der Bäcker beliefert *den ganzen Vormittag/in drei Stunden/nach drei Stunden* die Bewohner mit Brot.
 b. *Der Bäcker *beliefert* den ganzen Vormittag die Bewohner *am Brot*.
 c. *Die Bewohner *beliefern sich* sehr lang mit Brot.

예문 (39a)의 schreiben동사는 사태진행의 동작태를 갖고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drei Jahre lang과 의미적 충돌 없이 사용된다. 또한 영어에 있어서 동

사의 진행형에 해당하는 (39b)의 구획구조(partitive Konstruktion)와 (39c)의 중간구조(Mittelkonstruktion)는 사태 진행을 나타내는 schreiben의 경우 모두 문법적이다. 그러나 사건을 지칭하는 전철동사 erbeuten과 beliefern은 (40a, b, c)와 (41a, b, 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지속이나 시간연장 부사와도 양립할 수 없고 또한 구획구조도 중간구조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동사가 상태나 사태진행을 나타내는 동사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앞서 제시한 i) 상태 수동문과 부가어적 형용사 구문 유도의 통사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ii) 구획구조와 중간구조의 적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iii) 시간구간이나 시간연장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동사들이 우리의 직관에 비추어 볼 때 초기상태로부터 목표상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하나의 복합사태를 지칭하며 이러한 복합사태는 시간축 상에 하나의 특정한 시간을 점유하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동과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 사건동사들이 하나의 복합사태를 지칭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복합사태가 시제와 상과 같은 통사적인 수단을 통해 시간축상에 가시화 될 수 있는지를 다음절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3. 동사의 시간자질

앞장에서 우리는 독일어의 동사가 지칭하는 동작태를 사건, 진행 및 상태로 나누고 사건의 동작태를 기동과 결과로 구분하여 그 통사적인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사건동사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의미를 분석해 보고 이 사태변화가 근거하는 시간구간을 통사범주인 시제와 그리고 상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기동과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 사건동사들의 의미는 어휘화 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철의 의미에 의존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자동사의 경우 전철은 어간이 자동사인 경우와 명사 및 형용사인 경우가 각각 보조동사 **beginnen**과 **werden**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동의구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기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⁸

- (42) a. Der Mann erblindet/wird blind.
 b. Der Mann ist erblindet/blind geworden.
 c. der blind gewordene Mann.

⁸ 이 논문에서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비분리 혹은 분리전철동사가 보조동사 **beginnen** 혹은 **werden** 등에 의한 동의구문으로 바뀌어 쓸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는 Storch (1978)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43) a. Die Wunde vernarbt/wird zur Narbe.
 b. Die Wunde ist vernarbt/(zur) Narbe geworden.
 c. die (zur) Narbe gewordene Wunde.
- (44) a. Die Rose erblüht/beginnt zu blühen.
 b. Die Rose ist heute morgen erblüht/hat heute morgen zu blühen begonnen.
 c. die heute morgen erblühte Rose/*die heute morgen zu blühen begonnene Rose.

vernarben, erblinden 등의 어휘의미는 이들이 지칭하는 사건이 시발점과 종착점을 갖는 어떤 시간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erblühen의 경우 어휘의미가 지칭하는 사건은 특정한 시간구간에서 다만 시발점만을 암시할 뿐 사건의 종말을 나타내는 종착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예문 (14)을 통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42)-(44)의 b-문장들에서 동의구문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werden, beginnen을 가지고 완료형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즉 Der Mann ist erblindet/Die Wunde ist vernarbt와 Die Rose ist erblüht는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고 독일어의 완료시제(German Perfekt)를 통해 사건이 종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어떤 시간구간에서 성취되었는지 아니면 단지 어떤 순간적인 변화만을 나타내는지 하는 문제는 erblindet, vernarbt, erblüht의 과거분사형태를 통해서서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들과 동의 구문 관계에 있는 blind werden/zur Narbe werden과 zu blühen beginnen의 완료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제 사건이 어떤 시간구간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되면 이들 술어의 논항들은 변화된 상태를 하나의 어휘적 속성으로서 취하고 이는 부가어적인 형용사 구문에서 그대로 반영된다.⁹ 따라서 der blind gewordene Mann/die zur Narbe gewordene Wunde는

⁹ 사건을 지칭하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초기상태에서 목표상태로의 사태변화를 나타낸다. 사건 동사가 자동사이면 완료시제에 의해 과거분사의 형태로 바뀌고 이 과거분사는 자신이 취하는 논항(Theme-Argument)에게 목표상태의 속성을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der Mann erblindet에서 erblinden은 사건동사인데 완료시제를 통해 erblindet로 바뀌면 사태가 초기상태에서 목표상태로 변화된 것을 지칭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상논항 der Mann이 과거분사 erblindet에 의해 명시되는 목표상태의 속성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변화가 완결된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건동사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타동사의 경우에도 역시 초기상태에서 목표상태로의 변화를 지칭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분사는 사태가 목표상태에 도달하였음을 규정하고 자신이 취하는 두 번째의 논항이 이 목표상태의 속성을 얻게된다. 예를 들어 Die Frau hat den Mülleimer entleert에서 과거분사 entleert는 목표상태의 속성을 명시하고 두 번째 대상논항인 den Mülleimer가 이 목표상태의 속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der Mülleimer ist entleert와 같은 상태 수동문에 의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인 근거는 Klein (1998)을 참조.

각각 erblinden, vernarben가 지칭하는 사건변화의 결과로서 der Mann ist blind/die Wunde ist eine Narbe를 함의하고 이는 blind, eine Narbe가 각각 der Mann, die Wunde가 갖는 속성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어적인 형용사 der **erblindete** Mann/die **vernarbte** Wunde에서 erblindet와 vernarbt가 blind geworden, eine Narbe geworden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der Mann과 die Wunde의 속성이 될 수 있어서 역시 문법적이다. 다음으로 (39c)에서 die erblühte Rose가 문법적인데 반해 die zu blühen begonnene Rose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논의하여 보자. Erblinden이 기동동사로서 다만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고 변화의 결과가 열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동의 구문인 zu blühen beginnen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이들의 문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독일학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휘의미론과 통사론의 양면에서 그 이유를 논하고자 한다.

(45) A. 어휘의미론적인 설명

erblühen은 기동동사부류에 속하고 직관적으로 사건의 변화를 위한 특정한 시간구간을 필요로 한다.

B. 통사론적인 설명

erblühen은 zu blühen beginnen과 같은 동의구문으로 해석되고 사건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시간부사 혹은 시제나 상과 같은 통사적인 수단을 통해 설정할 수가 없다.

A와 B는 사건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의 설정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모순을 나타낸다. 즉 erblühen의 어휘의미는 지칭하는 사건이 시간구간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함의하지만 그러나 통사적으로 이러한 시간구간을 나타내는 zwei Stunden lang, eine Woche lang과 같은 시간부사나 in einer Stunde, in einer Woche 등과 같은 시간연장 부사, seit einer Stunde, seit heute morgen등과 같은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와 사용될 수 없음을 예문 (12), (13)과 (18), (19)에 나타나는 기동동사의 의미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44c)에서 die heute morgen erblühte Rose이 문법적이고 *die heute morgen zu blühen begonnene Rose가 비문법적인 이유를 우리는 독일어 완료시제가 나타내는 의미의 특수성에서, 그리고 부가어적인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¹⁰

¹⁰ 예문 (44a) Die Rose beginnt zu blühen.에서 beginnen은 두 개의 논항 즉 die Rose와 zu blühen을 취하는 타동사이다. 이제 이 문장을 완료시제문장 (44b)로 바꾸면 과거분사 begonnen은 사태가 초기상태에서 목표상태로 변화된 것을 지칭하고 자신의 두 번째 보족어인 zu blühen에 목표상태의 속성을 부여하게 된다. 다른 한편 과거분사 begonnen은 비정형요소이기 때문에 정동사 hat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완료시제를 지칭

3.1. 기동 (inchoativ)의 동작태와 시제 및 상의 관계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사건동사의 시간적인 의미를 통사적인 수단인 시제와 상으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현재시제 문장인 *die Wunde vernarbt*의 의미를 Klein (1994)에 따라 시간축 상에 기술하여 보자.

(46) a. *die Wunde vernarbt.*

b.

TU

-----//////////----- 시간축

TSit: TT

TSit: 상황시간

TT: 주제시간

TU: 진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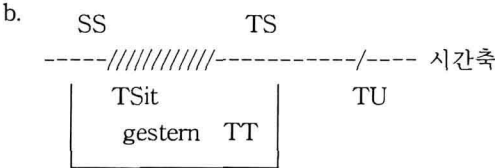
문장술어인 *vernarbt*는 시작점과 종결점을 갖는 시간구간 *//////*내에서 사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때 어휘의미 <*die Wunde vernarben*>가 갖는 상황시간 (Situation Time = (STit))은 상 (Aspect)을 통하여 주제시간 (Topic Time = TT)에 연결되고 이 주제시간은 진술시간 (Time of Utterance = TU)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때 정동사 *vernarbt*의 활용어미 *-t*는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TU가 TT에 포함되게 한다. 즉 현재의 경우 진술시간은 주제시간에 포함된다.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술어 *vernarbt*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시간축 상에서 주제시간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간구간으로서의 상황시간을 점유하게 되는데 이 시간구간 안에 초기상태 (SS), 변화 (Change), 목표상태 (TS)의 복합사태로 기술되는 사건, 즉 <*die Wunde vernarb-n*>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시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들 복합사태가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현재 시제는 진술시간이 주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 이외에, 이 <*die Wunde vernarb-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다. 또한 독일어에서 현재시제가 진행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46a)는 분명히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에 내포되는 미완료상 (imperfective aspect)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의 어느 부분, 즉 SS, Change, TS의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는 독일어의 상을 통하여 통사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정동사의 활용어미 *-te*를 통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die Wunde vernarb->*가 지칭하는 사건이 시간축 상에서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이때 정동사 *hat*는 *beginnen*의 첫 번째 논항을 자신의 주어로 취하게 된다. 다음으로 **die heute morgen begonnene Rose*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begonnen*이 수식하는 논항은 부정사구인 *zu blühen*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Rose*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44b) *Die Rose hat zu blühen begonnen.*으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 **die zu blühen begonnene Rose*를 유도하더라도 *begonnen*이 자신이 목표상태로 규정하는 두 번째의 논항 *zu blühen*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의 논항 *Rose*를 수식하게 되는, 부가어적인 형용사와 명사간의 통사적인 제약 때문에 역시 비문법적이다.

를 검토하여 보자.¹¹

(47) a. die Wunde vernarbte gestern.



TSit: 상황시간 TT: 주제시간 TU: 진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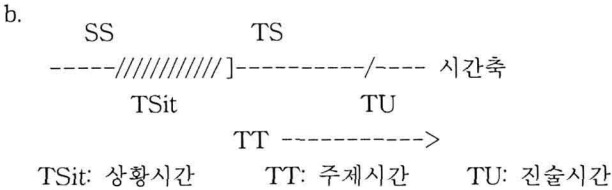
독일어에서 정동사의 활용어미가 과거시제를 나타낼 경우 이 과거시제는 단순히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완결상(perfective aspect)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Klein 1994: Chapter 6, Aspect 참조). 먼저 (47b)에서 정동사 *vernarbte*의 활용어미 *-te*는 주제시간이 진술시간보다 앞서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완결상을 통하여 어휘의미 <die Wunde vernarb-n>가 차지하게 되는 상황시간 TSit은 과거의 어떤 시간구간, 즉 *gestern*의 한 부분을 주제시간 TT로 하는 시간구간과 연결됨으로써 *vernarben*이 지칭하는 복합사태가 이미 어제 완결됨을 나타낸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TT가 TSit의 초기상태(SS), 목표상태(TS), 혹은 이 두 상태의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어느 상태에라도 주어질 수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TSit가 점유하는 시간구간은 이 어휘내용이 앞서 본 예문 (18b), (19b)의 지속성 시간부사 *zwei Tage lang* 혹은 시간연장 부사 *in einer Woche* 등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사론 상에서는 단지 하나의 시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TT가 TSit의 어느 부분이든, 즉 SS, TS, 변화(Change)에 부과되든지 이를 통사상에서 가시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¹¹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와 시간관계에 대한 기술은 Reichenbach (1947)의 사건시간(event time = E), 지칭시간(reference time = R), 진술시간(speech time = S)에 근거하지 않고, Klein (1994, 1998)의 시제와 상에 근거한다. 시제란 진술시간(TU)와 주제시간(TT)과의 관계로 나타내는데 이때 TT가 TU를 앞서거나(과거), TU가 TT에 포함되거나(현재), TT가 TU 다음에 옴으로써(미래), 진술을 통한 언어가 시간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다른 한편 상이란 언어가 TT와의 관련하여 시간축상에 점유하는 상황시간 TSit과 주제시간 TT의 관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완료상은 TT가 TSit 이후에 놓이는 관계를 지칭하고 영어의 경우 접사 *-ing*에 의해 표시되는 진행형태는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TT가 TSit에 포함되는 관계를 지칭한다. 독일어의 경우 TT가 현재일 때 진행의 미완료상을 나타내고 단순과거일 때는 미완료상과 완료상의 중의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¹² 초기상태(SS = Source State), 목표상태(TS = Target State) 등은 Klein (1994)이 동사의 어휘의미를 분류하기 위해 제안했던 술어들로서 본 논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동사들의 시간적인 의미기술에 적합하다고 본다.

끝으로 완료시제를 나타내는 다음 예문의 의미를 시간축 상에 나타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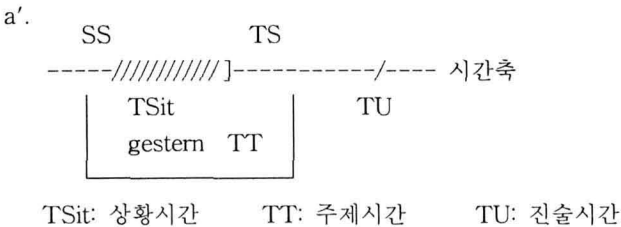
(48) a. die Wunde ist vernarbt.



과거분사 vernarbt에 의해 지칭되는 완료상은 어휘내용 <die Wunde vernarb->을 시간 축 상에서 TT이전의 시간구간으로 TSit를 한정시킨다. 이 시간구간에서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사태의 변화, 즉 초기상태에서 목표상태로의 변화인 사건이 완료된다. 다음으로 정동사 ist에 의해 확정되는 현재시제는 vernarben의 논항을 통사적인 주어로 선택하고 진술시간 TU를 주제시간 TT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때 논항인 die Wunde는 과거분사 vernarbt에 의해 명시되는 목표상태의 속성을 갖게 된다. 또한 TT는 목표상태 뿐만 아니라 목표상태 이후에 오는 모든 시간에서 이 논항이 갖게 되는 속성을 주제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독일어의 현재완료형태가 갖는 이중의미는 다음 예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제시간을 과거로 고정시킬 수도 있다.

(49) a. Die Wunde ist gestern vernarbt.

b. Die Wunde ist *zwei Tage lang/*in einer Woche vernarbt.



(49a')에서도 과거분사 vernarbt는 어휘의미 <die Wunde vernarb->가 지칭하는 사태가 목표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내고 이 목표상태의 속성을 논항인 die Wunde가 갖게 된다. 시간축 상에서 이는 TSit로서 완료상에 의해 특정한 TT와 연결된다. 즉 완료상은 TT가 TSit 이후에 오도록 제약을 가한다. 이로써 완료시제에 의해 vernarben가 지칭하는 사건이 현재의 시간에는 이미 목표상태에 도착하였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조동사 ist는 (48b)에서와 같이 현재시제로서 논항인 die Wunde를 통사적인 주어로 취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시제는 주제시간 TT가 진술시간 TU를 포함하도록 제약을 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간부사 gestern이 자기의 시간구간 안에 TT를 한정시키기 때문에 이

TT가 현재의 진술시간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모순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어의 상과 시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계해석이 요구된다.¹³

현재시제나 과거시제와 마찬가지로 완료시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SS, Change, TT로 구성된 복합사태가 점유하는 TSit가 (49b)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속성 시간부사 *zwei Tage lang*과 시간연장 부사 *in einer Woche* 등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순간적인 시점으로 포착될 뿐이고 일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직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2. 결과의 동작태 (resultative Aktionsart)와 시제

앞절에서 우리는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사인 전철 동사에 해당하고 이 전철동사의 여간이 자동사인 경우에는 사건의 시작을, 여간이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 사건의 시작은 물론 그 결과를 함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 중에서 비분리 전철동사들을 예로 선택하여 이들이 지칭하는 시제를 시간구조상에서 기술할 것이다.

기동의 동작태를 갖는 자동사의 경우와 같이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 타동사에 있어서도 예문(35), (36)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시간구간이나 시간연장을 나타내는 부사와는 통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는 동사이고 이 사건은 직관적으로 반드시 시간구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다음과 같은 보조동사 *beginnen*과 *aufhören*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금 앞서 제시한 예문들 중 몇 가지를 택하여 확인해 보자.

- (50) a. *Man hat vor drei Stunden begonnen, die feindlichen Panzer zu erbeuten.*
- b. **Man hat vor einer Stunde aufgehört, die feindlichen Panzer zu erbeuten.*
- (51) a. *Der Bäcker beliefert die Bewohner mit Brot.*
- b. *Der Bäcker hat morgen früh begonnen, die Bewohner mit Brot zu beliefern.*
- c. **Die Bewohner hat erst vor einer Stunde aufgehört, die Bewohner mit Brot zu beliefern.*

¹³ 독일어의 과거시제동사가 어떤 상을 나타내는 문제는 독일학 연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결상(perfective aspect)으로 간주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미완료상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시제 동사를 완결상으로 취급한다.

- (52) a. Hans hat die Studie erarbeitet.
 b. Hans hat vor einer Woche begonnen, die Studie zu erarbeiten.
 c. *Hans hat heute aufgehört, die Studie zu erarbeiten.

이상의 예문들에서 우리는 사건을 지칭하는 전철동사 *erbeuten*, *erarbeiten*, *beliefern* 등의 동작태가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조동사 *beginnen*을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건이 임의로 중단될 수 없음을 역시 보조동사 *aufhören*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작과 단절의 동작태와는 무관한 순간성 동사 (*punktuell*es Verb)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항상 비문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 (53) a. Hans hat seine verlorene Tasche gefunden.
 b. *Hans hat begonnen, seine verlorene Tasche zu finden.
 c. *Hans hat aufgehört, seine verlorene Tasche zu finden.
- (54) a. Maria hat neue sprachliche Erscheinungen entdeckt.
 b. *Maria hat begonnen, neue sprachliche Erscheinungen zu entdecken.
 c. *Maria hat aufgehört, neue sprachliche Erscheinungen zu entdec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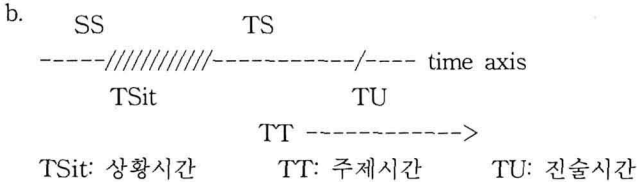
그러나 시작과 단절을 나타내는 *beginnen*과 *aufhören*은 지속성 동사의 동작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제나 문법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 (55) a. Die Mutter kocht zwei Stunden lang Fleisch.
 b. Die Mutter hat um ein Uhr begonnen, Fleisch zu kochen.
 c. Die Mutter hat um drei Uhr aufgehört, Fleisch zu kochen.
- (56) a. Der Mann putzt den ganzen Vormittag die Fenster.
 b. Der Mann hat vor 5 Stunden begonnen, die Fenster zu putzen.
 c. Der Mann hat vor einer Stunde aufgehört, die Fenster zu putzen.
- (57) a. Die Rose blühte den ganzen Monat.
 b. Die Rose hat vor einem Monat zu blühen begonnen.
 c. Die Rose hat gestern zu blühen aufgehört.

이상의 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는 지속성 동사의 동작태와는 통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반면 순간성 동사의 동작태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태는 보조동사 *beginnen*에 의해서 다만 시작단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조동사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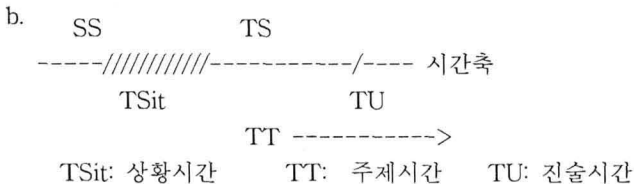
하는 사건을 시간축 상에서 기술하여 보자.

(60) a. Hans erarbeitete die Studie.



앞서 자동사 *verarbeitet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동사 *erarbeitete*의 활용어미 *-te*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데 이는 TT가 어휘내용 <Hans erarbeit- die Studie>의 상황시간이 단순히 과거에 놓여있다는 점 이외에도 완결상 (perfective aspect)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과거시제에 의해서 이 어휘내용의 주제시간은 진술시간보다 앞서게 되고, 또한 완결상을 통하여 이 어휘내용 <Hans erarbeit- die Studie>는 상황시간 TSit에 연결되는데 이때 주제시간은 상황시간과 부분적인 포함관계를 갖는다. 즉 주제시간은 상황시간의 초기상태 (SS), 목표상태 (TS)에 포함되거나, 혹은 초기상태와 목표상태의 일부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독일어의 과거시제는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황시간이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의 시간구간으로 기술되는데, 즉 초기상태 SS, 사태의 변화 (////로 표시), 그리고 목표상태 TS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에 내포되어 있어 우리가 (60a)에서 주제시간을 이야기할 때면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이 종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끝으로 사건동사가 완료시제로 나타날 경우 이 동사의 동작태를 시간축 상에 기술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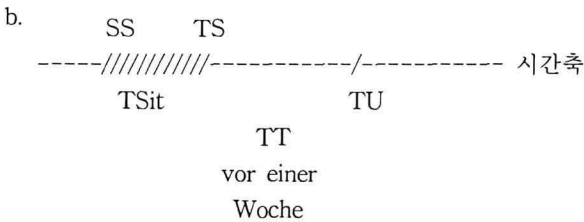
(61) a. Hans hat die Studie erarbeitet.



독일어에서 동사어간 *erarbeiten*으로부터 유도된 과거분사 *erarbeitet*는 완료상을 나타내는데 이 완료상은 *erarbeit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사건이 초기상태, 즉 $-\varphi$ (= Hans arbeitet an der Studie nicht)에서 변화 φ (= Hans arbeitet an der Studie)를 거쳐 목표상태 (= die Studie ist fertig)에서 종결되면 변화를 겪는 목적어인 대상논항은 과거분사에 의해 지칭되는 목표상태를 하나의 속성으로 취하게 된다. 즉 명제 *erarbeiten*

(x, y)이 사건을 지칭한다면 erarbeitet(y)은 이사건의 목표상태를 나타내고 과거분사 erarbeitet는 이 사건을 겪는 대상 y이 목표상태에서 갖게 되는 속성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완료시제는 조동사와 과거분사와의 결합구조로 표현되는데 이때 조동사 haben은 어간 erarbeit-의 첫 번째 논항을 자신의 논항인 주어로 택하게 되기 때문에 (61a)과 같은 문장이 유도된다(Klein 1998 비교). 조동사 hat에 의해 지칭되는 현재시제는 진술시간 TU를 주제시간 TT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논항인 die Studie는 과거분사 erarbeitet가 지칭하는 목표상태의 속성을 갖게 되는데, 이때 TT는 목표상태 뿐만 아니라 목표상태 이후에 오는 모든 시간에서 이 논항이 갖게 되는 속성을 주제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러한 독일어의 완료시제는 다음 예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제시간을 과거로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미를 갖게 된다.

(62) a. Hans hat vor einer Woche die Studie erarbeitet.



TSit: Situation Time TT: Topic Time TU: Utterance Time

(62a)의 완료시제는 어휘의미 <Hans erarbeit-die Studie>가 지칭하는 사건이 목표상태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내고 과거분사 erarbeitet에 의해 규정되는 목표상태의 속성을 논항인 die Studie가 갖게 된다. 시간축상에서 이는 TSit로서 완료상에 의해 특정한 주제시간 TT와 연결된다. 즉 완료상은 TT가 TSit이후에 오도록 제약을 가한다. 다음으로 조동사 hat는 현재시제로서 erarbeiten의 첫 번째 논항인 Hans를 통사적인 주어로 취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시제는 주제시간 TT가 진술시간 TU를 포함하도록 제약을 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간부사 vor einer Woche는 TT를 진술시간 TU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TT가 현재의 진술시간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모순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어의 현재완료 시제(Perfekt)는 상과 시제의 이중적인 시간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독일어 모국어 화자의 언어직관에 부합된다. 즉 (62a)는 (62b)와 같은 과거분사의 완료상에 의해 종결된 사건을 지칭함으로써 상황시간 TSit가 TT 이전에 놓이게 되고 시간부사 vor einer Woche가 이 TT와 연결됨으로써 전체의 사태는 과거에 놓이게 되는 경우와, 현재시제에 의해 진술시간 TU가 TT안에 위치함으로써 사건의 종결, 즉 목표상태와 시간부사 vor einer Woche가 목표상태를 명시함으로써 그 결과가 현재에는 물론 현재 이후에도 타당한 이중의미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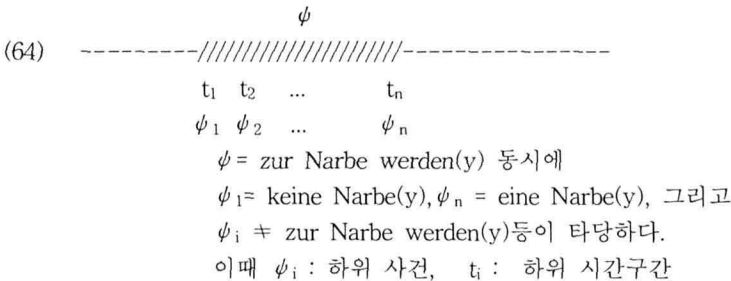
4. 동작태와 사건구조

앞 절에서 우리는 전철동사의 동작태가 사건을 나타내며 이 사건은 초기상태(SS), 변화(Change), 목표상태(TS)의 복합사태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복합사태는 보조동사 *beginnen*을 이용하여 그 시작점이 포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진행은 보조동사 *aufhören*에 의해 임의로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복합사태가 간접적으로나마 시간구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시간구간은 시제나 상과 같은 통사적 수단을 통해 시간축 상에서 가시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 장에서는 사건동사의 동작태가 지칭하는 복합사태가 하나의 시점으로 파악되고 SS로부터 TS에 이르는 변화가 통사적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이유를 시간 축 상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먼저 사건을 나타내는 자동사의 동작태, 예를 들어 *vernarben*의 복합사태를 기술하여 보자.

(63) a. Die Wunde vernarbt.

b. 초기상태(SS) 변화(Changes) 목표상태(TS)
 y ist keine Narbe ψ y ist eine Narbe

우리는 *vernarben*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이 초기상태에서는 사건변화의 대상이 되는 y가 *Narbe*가 아니다가 변화 (ψ)를 겪고 난 후 *Narbe*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ψ 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건동사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2장에서 기동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어간이 명사나 형용사일 때 보조동사 *werden*을 이용하여 동의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사건의 목표상태를 완료시제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63b)와 같은 기술은 단지 명사와 형용사를 어간으로 하는 전철동사에 국한하고 동사를 어간으로 하는 전철동사는 보조 동사 *beginnen*으로 동의구문화 되기 때문에 사태의 변화가 목표상태를 포함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이제 (63b)에서의 사태변화 ψ 를 시간축 상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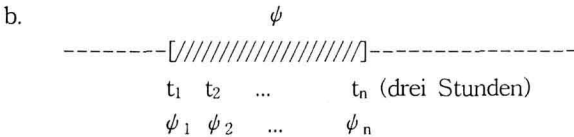


ψ 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를 시간축 상에 나타낸 (64)을 보면 추상적인 시간구간 $[t_1, t_n]$ 에 기초하고 *vernarben*에 의해 지칭되는 진행을 나타내는 사건은 초기상태 ψ_1 에서 목표상태 ψ_n 으로 바뀌지만 초기상태와 목표상태를 제외한 각 시점에서는 결코 동질성의 사태변화로 분해할 수 있는 하위 시간구간을 통사상으로 가시화할 수가 없다.¹⁴ 다시 말해 *vernarben* (y)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예를 들어 하위 시간구간 t_i 에 대응하는 하위사태 ψ_i 의 관계를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어떠한 통사적인 수단, 예를 들어 시제나 상 혹은 시간부사에 의해 예시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시간구간에서라도 이것의 모든 하위 시간구간에서 동질의 사태를 지칭하는 진행 혹은 상태동사의 동작태와 양립하는 지속성 시간부사 (*durative Adverbien*)를 *vernarben*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사건이 종료됨을 지칭하는 동사 - 소위 Vendler와 Dowty의 완성동사 (*accomplishment*) - 와 양립하는 시간연장 부사 (*Zeitspannadverbien*)들과도 동시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 (65) a. *Die Wunde vernarbt eine Woche lang.
- b. *Die Wunde vernarbt nach einer Stunde.
- c. *Die Wunde vernarbt in einer Stunde.

사건동사와는 달리 지속성 시간부사는 상태나 지속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과 통사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지속성 시간부사가 지속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를 수식하는 기술하는 경우이다.

(66) a. Maria hat drei Stunden lang getanzt.



¹⁴ Kripka는 영어의 *pull*과 *throw*와 같은 사건동사들을 비교하여 *pull*과 같은 사건동사가 지칭하는 사건과 이 사건이 근거하는 시간구간은 이질동형 (*homomorphism*)의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만일 e 라는 사건이 e' , e'' 와 같은 하위 사건으로 구분될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시간구간을 b' , b'' 이라고 할 때 i) $b' \neq b''$ 이면 (e' , b')에서의 *pull*의 방법과 (e'' , b'')의 *pull*의 방법에서 $e' \neq e''$ 이 타당하다. ii) (e' , b')에서의 *pull*의 방법과 (e'' , b'')의 *pull*의 방법은 ($e' \cup e''$, $b' \cup b''$)가 해당되는 전체의 방법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erblinden*, *vernarben* 등이 지칭하는 사건기술의 형식화는 Kripka의 *manner verb*의 기술을 위한 형식화와 내용상으로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Kripka의 *Vortrag*, Universität Humboldt zu Berlin, Dec 8, 1998). 그러나 Kripka의 *manner verb*가 지속성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고 이 부사가 지칭하는 시간구간에서 동질의 사태를 나타낸다면 이 논문에서의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은 지속성의 시간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수도 없고 Vendler, Dowty의 완성동사와 같이 시간연장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psi = \text{tanzen}(x)$
 만일 $P(\psi, t)$ 가 상태나 지속을 지칭하는 사태라면,
 모든 하위 사태 $\psi_i, \psi_{i'} \in \psi$ 에 대하여, 그리고 $t_i \neq t_{i'}$
 인 하위 시간구간인 $t_i, t_{i'} \in t$ 에 대하여 $\psi_i = \psi_{i'}$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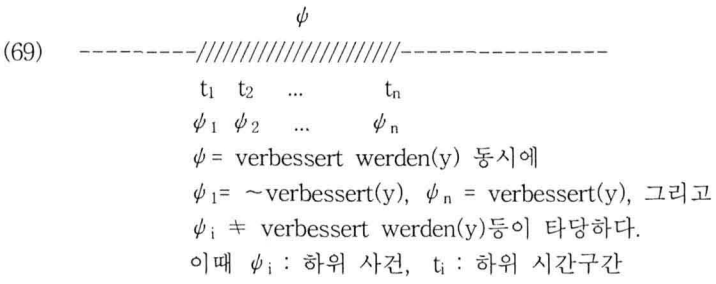
(66b) 조건은 $\text{tanzen}(x)$ 이 지칭하는 사태는 각각의 하위 시간구간에서 동일한, 즉 그 정도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 하위사태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하위 시간구간 t_i 에서 하위사태 ψ_i 는 하위 시간구간 $t_{i'}$ 에서의 하위사태 $\psi_{i'}$ 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떤 시간구간의 모든 하위 시간구간에서 진행 혹은 지속되는 하위사태가 일정한, 상태동사 혹은 지속성 동사의 동작태와 지속성 시간부사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문 (66a)는 문법적이다. 또한 대부분 상태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태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지속성 시간부사와 통사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 (67) a. Der Junge schlägt den Hund stundenlang.
- b. Der Mann besitzt das Haus schon mehrere Jahr.
- c. Hans studierte a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drei Semester.

다음으로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 전철동사의 사건구조를 기술하여 보자. 이 논문의 3.2.절에서 본 대부분의 타동사인 전철동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verbessern*과 같은 사건구조를 갖는다.

- (68) a. Der Lehrer verbessert die Fehler.
- b. 초기상태(SS) 변화(Changes) 목표상태(TS)
- x verbessert y ψ y ist verbessert.

사건동사 *verbessern*은 <Agent, Theme>의 의미역 구조를 갖고 초기상태로부터 사태변화 (ψ)를 겪고 난 후 목표상태에 이르는 사건을 지칭하는데, 이때 의미역 Theme을 갖는 논항 y는 목표상태를 규정하는 속성 *verbessert*를 얻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태변화 ψ 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축 상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추상적인 시간구간 $[t_1, t_n]$ 에 기초하고 *verbessert werden*(y)에 의해 지칭되는 ψ 는 초기상태 ψ_1 에서 목표상태 ψ_n 으로 바뀌는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나 초기상태와 목표상태를 제외한 각 시점에서는, *vernarben*(y)에 의해 지칭되는 사건의 진행은,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각각의 하위 시간구간에 대응되는 하위사태와 같은 이질동형 H(omomorphismus)의 관계로서 통사적으로 예시화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이미 제시한 (64)에서와 같다. 따라서 *tanzen*, *besitzen*에서 본바와 같은 어떤 시간구간에서라도 이 시간구간의 모든 하위 시간구간에서 진행 혹은 지속되는 하위사태가 일정한, 상태동사 혹은 지속성 동사의 동작태와 양립하는 지속성 시간부사(durative Adverbien)와는 *verbessern*은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 종료되는 완성동사들과도 달리 시간연장 부사(Zeitspannadverbien)들과도 동시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장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 (70) a. *Hans verbessert den Fehler drei Stunden lang.
 b. *Hans verbessert den Fehler in drei Stunden.
 c. *Hans verbessert den Fehler nach drei Stunden.

(65)와 (70)의 비문법성은 *vernarben*, *verbessern*등과 같은 사건동사들이 근거하고 있는 시간구간이 결코 가시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시간구간은 앞서 언급한 Vendler (1957), Dowty (1979)의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의 시간구간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성취동사가 근거하는 시간구간의 특성을 보면 만일 어떤 사건 e가 t라는 시간구간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e는 t의 하위구간인 t', 즉 t'(t'⊂t)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들 성취동사의 사건시간은 예를 들어 'in one year,' 'from January to May' 등과 같은 시간연장부사(time span adverbial)에 의해 시간축 상에서 그 전체의 길이가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시간은 예를 들어 *in drei Stunden*, *nach drei Stunden* 따위와 같은 시간연장부사에 의한 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가시화될 수 없다.

이로서 우리는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의 복합사태가 시간구간을 근거로 하지만 이 시간구간은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수식될 수 있는 동질의 하위시간구간으로 분해될 수가 없으며, 통사상으로는 단지 하나의 시점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5. 결 론

이휘내용으로 볼 때 사건동사의 동작태는 통사적으로 가시화될 수 없는 추상적인 시간구간을 근거로 한다. 한편 지속성의 시간부사(durative Adverbien)는

상태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태에 대해 시작점과 종결점을, 그리고 이들 두 시점 사이를 동질의 하위시간구간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동사들은 지속성의 시간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으며, 그들이 지칭하는 목표상태의 도달시점은 어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완료시제나 상을 통해 통사적으로 확정될 뿐이다. 지금까지 독일어 동사의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동사의 동작태는 단순히 초기상태 $\sim \psi$ 에서 목표상태 ψ 으로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초기상태와 목표상태가 하나의 모순된 대립관계를 갖는 (Klein 1994, 1998 비교) 것이 아니고 초기상태 $\psi_1=$ 에서 목표상태 $\psi_n=$ 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변화의 단계를 거치기 위한 시간구간을 필요로 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구간은 어휘적으로 함의되지만 - 즉 보조동사 *beginnen*, *aufhören*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 통사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동사나 지속성 동사의 동작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이 이 논문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다. 사건동사가 근거하는 시간구간은 신수송(1997)에서 조어현상을 통사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참 고 문 헌

- 신수송 (1997) '독일어 사건명사 (Ereignisnomen)에 관한 의미론적 기술,' 어학연구 33.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신수송 (1998) '조어형성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어학연구 3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Abraham, W. (1986) 'Was hat sich in Damit hat sich's?,' in C. R. L. G. ed., *Das Passiv im Deutschen: Akten d. Kolloquiums über das Passiv im Deutschen*, Tübingen, Nizza.
- Agrell, S. (1908) *Aspektänderung and Aktionsartbildung beim polnischen Zeitworte*, Ohlsson, Lund.
- Bartsch, R. (1981) 'Semantics and Syntax of Nominalizations,' in Groenendijk, Th. et al.,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Amsterdam, Mathematical Center Tracts 135.
- Behagel, O. (1923) *Deutsche Syntax IV, Band, Wortstellung*, Heidelberg.
- Bennet, M. and B. Partee (1978) *Toward of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Brinker, K. (1971) 'Das Passiv im Heutigen Deutsch,' Miinchen.
- Curme, George O. (1952) *A Grammar of the German language*,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 ed., *The Logic of Description and Ac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_____ (1980) *Essays on Action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DiSciullo A.-M. and E. Williams (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MIT Press.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D. Reidel.
- _____ (1991) 'Thematic proto 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Vol. 67, Nr. 3
- Duden (1984)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 u.a., Dudenverlag 4, Aufl.
- _____ (1994) *Dud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Drodowski, G, ed., Mannheim, Wien, and Zürich, Dudenverlag
- Egg, M. (1994) *Aktionsart und Kompositionalität*, *Studia Grammatika* XXXVII, Akademie Verlag.
- Eisenberg, P. (1994)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Metzler.
- Engelberg, S. (1994) *Ereignisstrukturen. Zur Syntax und Semantik von Verben*, Theorie des Lexikons Nr. 60, Heinrich Heine Universität Düsseldorf.
- Ehrich, V.-E. (1977) *Zur Syntax und Semantik von Substantivierung im Deutschen*, Kronberg, Scriptor Verlag.
- Essau, H. (1973) *Nominalization and Complementation in Modern German*, Amsterdam/London,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Fanselow, G. (1988) 'Word Formation and the Human Conceptual System,'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Arbeitsberichte 179.
- Flämig, W., K. Heidelph, and W. Motch (1981)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Berlin
- Fleischer, W. (1969)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Verlag Enzyklopädie.
- Garey, H. B. (1957)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
- Grebe, P. (1966) *Der große Duden: Grammatik*, Mannheim
- Helbig, G. (1968) Zum Problem der Genera des Verbs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aF* 5, 29-148.
- _____ (1972) 'Was ist ein unpersönliches Passiv?,' in *DaF* 12.
- _____ (1989) Das Passiv und kein Ende, *DaF* 26.4, 215-221.
- _____ and J. Busch (1986) *Deutsche Grammatik*, Berlin.
- Herweg, M. (1990) *Zeitaspekte*,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 Höhle, T. N. (1978) *Lexikalische Syntax, Die Aktiv-Passiv-Relation und andere Infinitkonstruktionen im Deutschen*, Tübingen, Max Niemeyer

- Verlag.
- Koo, Myung-Chul (1997) *Kausativ und Passiv im Deutsch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1624).
- Kenny, A.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8) 'An Analysis of the German Perfekt,' ms.
- Krifka, M. (1989) *Nominalreferenz und Zeitkonstitution*, München, Fink.
- _____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Sag, I/A. Sabolsci eds., *Lexical matters*, Standford, CSLI.
- Lehmann, Ch. (1991) 'Grammaticalization and Related Changes in Contemporary German,' in Traugott, E.C./B. Heine eds., *Approach to Grammaticalization*, Vol. II, Amsterdam/Philadelphia.
- Lieber, R.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öbner, S. (1985) 'Definites,' *Journal of Semantics* 4.
- Mater, E. (1967) *Rückläufige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VEB.
- Matzke, B. (1977) *Zur Problematik der Passivsynonymie im Deutschen - dargestellt an den Fügungen 'Reflexivpronomen + Verb,' 'sein zu + Infinitiv' und 'lassen + sich + Infinitiv,'* Ph.D. Dissertation,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 Moens, M. and M. Steedman (1986) *Temporal Informat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search Paper RP-2,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Edinburgh.
- Nerbonne, J. (1986) 'A phrase-structure for German,' *Linguistics* 24.
- Paul, H. (1920) *Deutsche Grammatik*, Halle a.S., Verlag von Max Niemeyer.
- Pustejovsky, J. (1991a)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 _____ (1991b) 'The Generative Lexik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7.
- Reis, M. (1988) 'Word Structure and Argument Inheritance,' *Linguistische Studien*, Reihe A, Arbeitsberichte 179.
- Rosen, S. T. (1989) *Argument Structure and Complex Predicates*, Ph.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Halle a.S.
- Schoenthal, G. (1976) *Das Passiv in der deutschen Standardsprache*, Darstellung in der neueren Grammatiktheorie und Verwendung in Texten gesprochener Sprache, München, Max Hueber Verlag (Heutiges Deutsch, I/7).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IT Press.
- Shin, S. S. (1981) 'Some Remarks on the Formations of German Noun-Noun Compound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 Smith, C.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 Sommerfeldt, K.-E. (1988) Zur Wortartklassifikation des Deutschen, Untersuchungen zur Wortartzugehörigkeit partizipialer Bildungen,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forschung* 41, 221-229.
- Steube, A. and Walther, G. (1972) Zur passivischen Diathese im Deutschen, *Linguistische Arbeitsberichte* 5, 17-29.
- Steinitz, R. (1981) *Der Status der Kategorie "Aktionsart" in der Grammatik*,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 Storch, G. (1978) *Semantische Untersuchungen zu den inchoativen Verben im Deutschen*, Braunschweig, Vieweg.
- Vennemann, T. (1982) 'Remarks on Grammatical Relation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 *The Philosophical Review* LXVI.
- _____ (1967) 'Facts and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and J. Zwarts (1992) 'Inltime and Space in conceptual and logical semantics,' *Linguistics* 30.
- Zifonun, G. (1992) 'Das Passiv im Deutschen: Agenten, Blockaden, und (De-) Gradierungen,' Hoffman, Ludger (Hrsg.), *Deutsche Syntax: Ansichten und Aussichten*,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250-275.

ABSTRACT

Aktionsart and Event Structure of German Prefix Verbs

Soo Song Shin

In this paper an attempt will be made to describe the Aktionsarts of German prefix verb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event structures denoted

by event predicates. Most German prefix verbs have either inchoative or resultative Aktionsart, and that they belong to the event predicates which denote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Intuitively these changes are interval based. However, they cannot be fixed and visualized by any means such as tense and aspect on the syntactic level. It was also discovered that most of inchoative and resultative verbs cannot co-occur with durative or time span adverbials and do not undergo the syntactic test such as 'unpersönliches passive' or 'Mittelkonstruktion,' whereas durative verbs are very often unmarked to that kind of syntactic tests. This means that the inchoative and the resultative verbs apparentl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interval for their process or action. This would be certainly against our intuition. Through the various syntactic methods such as state passive, attributive adjective derivation, and paraphrase relationship with 'Hilfsverb *beginnen* and *aufhören*,' one can confirm the interval for their process or action indirectly. The semantic approach of describing the events denoted by German prefix verbs has brought very important consequences: the event structure denoted by inchoative and resultative verbs is composed of the source state, the target state, and the intervening change between them. Thus the source state and the target state should not stand in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cause of the intervening intervals. As the intervals cannot be visualized on the syntactic level, the change from the source state to the target state seems to happen punctually. This invisible interval can be captured on the lexical level as suggested by word formation rules in Shin (1998a).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자우편: ssshin@plaza.snu.ac.kr